野 연대 갈등에 쪼개지는 광주 민심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지지 단체 찬반 성명전
대표간 이견, 공천과정 계파 갈등으로 확대 우려

야권통합과 수도권 연대론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지도부 갈등이 광주지역 민심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연대론을 두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간 의견 차이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당 지지세력 간 신경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실상 계파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창당을 주도했던 (가칭)국민의회계 김영집(광주 동남갑)·홍인화(광주 북구갑)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9일 "야권연대 불가 입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탈당 등 중대 결심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수도권 등 호남 외 지역은 야권연대를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국민의당은 이 모두를 거부하며 감정적으로 치달아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합당이후 국민회의와 국민의당 간 이념차이, 독선적 당운영, 패권정치 등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안철수 공동대표에 비판을 쏟아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외곽조직인 '시민네트워크 무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천정배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광주시민단체들은 비호남 연대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비상시국간담회'를 한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다시 한국정치의 유령인 '야권연대', '비판적 지지', '이중대'를 재탕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바꿔내라는 광주시민의 명령에 일부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행보는 천정배 의원에게 부역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과반의석 저지를 위해 '야권의 호남 경쟁·비호남 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광주재야시민사회 비상시국간담회'를 9일 진행한데 이어 12일 전국 재야시민사회 비상시국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야권연대론'에서 시작된 계파 갈등이 자칫 공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면접 등 공천심사과정에서 일부 계파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돌고 있고, 숙의배심원단 구성을 놓고도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야권 연대론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공동대표 간 갈등이 공천과정에서 계파간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예비후보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되면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무성 대표, 윤상현 면담 거부 사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막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의 중심에 선 윤상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김무성 대표 사무실에 들어서려다 당직자로부터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막말 파문…새누리 '발칵'

"김무성 이××" 녹취록 공개…친박-비박 공천 갈등 폭발

4·13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취중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날 윤 의원이 "김무성 죽여버려, 이XX, 솎아내야해"라고 말하는 등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새누리당은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비박(비박근혜)계는 윤 의원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몰아세운 반면 친박계는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9일 비박계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공천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나갈 무렵 당 대표실을 찾아 김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김 대표가 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훈현 새누리 비례 신청할 듯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새누리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공모에 참여할 전망이다.

조훈현 9단의 아내인 정미화 씨는 9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조 9단이 바둑계를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마추어 바둑 5단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훈현 9단에게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세울 것을 기대한다면서 총선 후보로 나서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4·13 총선 현장

김영록 "땅끝연안항 개발 등 해수부 수용"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8일 지역항만 및 어항개발과 관련해 어업인 건의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결과, 대부분 요청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남 땅끝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신축·어항구 신설과 제주항로·흑산항로를 개설한 우수영항의 연안항 승격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땅끝연안항의 개발용역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의원 6명 황주홍 지지 선언

강진군의회 김상윤(의장)·윤재남(부의장)·위성식·배홍준·강승주·정중섭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4·13 총선에서 황주홍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를 3번 역임하는 등 강진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는 국민의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과 두 번의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황 후보와 함께 강진 발전과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보성 도·군의원 18명 "김승남 지지"

고흥·보성 전남도의원과 군의원 18명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한 김승남 의원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김 의원은 FTA로 고통받는 농어촌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을 주도하고 농작물재해보험무사고 환급제도를 관철시켰다"면서 "또자연재배농법을 추진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등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사회경제법 제정 양극화 해소"

국민의당 서정성 광주 동남 갑 예비후보는 9일 "고용 없는 저성장과 심화한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남수 "선거 비용 아껴 이웃 돕겠다"

무소속 노남수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9일 "국민의 혈세인 선거 비용을 아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반값' 선거비용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선거비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국민혈세 675억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예산이 골목상권의 영세업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광주를 제조업 강소도시로"

국민의당 이상경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9일 "대한민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핵심적 역할을 광주가 해야한다"면서 "광주를 제조업 강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모델 구축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대기업과 중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윤민호, 광주 북을 출마선언

새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 윤민호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9일 4·13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풀뿌리 연대로 '99% 직접정치 시대'를 열고 정치세력을 확실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까지 15년간 매일 출근했던 곳은 아스팔트, 삶의 현장이었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치는 너무 멀리 있었다"며 "상전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북구의 비서관으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조상기 "목포 원도심 전통문화특구 조성"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목포 예비후보는 9일 당내 인재영입 인사인 김빈 디자이너를 초청해 '디자인과 정치의 만남'이란 주제로 토크 쇼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디자인이 개인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면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며 "품격 있고 풍요로운 미래 목포 건설을 위해서는 디자인처럼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해 원도심을 국가차원의 전통문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테마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김성환 "거버넌스센터 개설해 민의 수렴"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별, 계층별, 단체별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센터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를 극복하려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기적인 거버넌스 미팅을 통해 사전에 민의를 수렴, 구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이종행·목포=고규석기자 cki@

양혜령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국민의당 양혜령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동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를 차지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취약하다"라며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이들이 동구 재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특히 "구에 TF팀 구성을 통해 취업상담·취업 전 적성 교육, 취업 알선 등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